



# 하나TV “내가 원하는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TV로 본다”



하나로텔레콤  
커뮤니케이션선본부  
PR팀 김홍식 팀장

## 1. 귀사의 TV포털 서비스 “하나TV”를 소개해 주십시오.

“내가 원하는 방송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TV로 본다”

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24일, 초고속인터넷망과 IP 셋탑박스를 통해 TV로 영화, 드라마,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(VOD) 방식의 TV포털인 <하나TV> 상용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

<하나TV>는 ▲방송 편성표에 따라 시청해야 하는 기존 TV와 달리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편의성 ▲영화, 드라마, 교육, 생활정보, 스포츠 등 풍부하고 뛰어난 콘텐츠 ▲HD급에 가까운 고화질 디지털영상과 실감나는 5.1채널 사운드의 고품질 ▲영화 티켓 한 장 정도의 가격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저렴한 이용요금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

또한 최신 서비스 기술인 H.264 코덱기술과 다운로드 앤 플레이(Download & Play) 방식을 채택해 2Mbps 정도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초고속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실시간 다채널서비스인 IPTV 제공 시에도 기존 셋탑박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.

올해 100만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<하나TV>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월트디즈니 텔레비전을 비롯해, 소니픽처스, 20세기폭스, 내셔널지오그래픽, BBC Worldwide, KBS, MBC, SBS, EBS, CJ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160여개 콘텐츠 회사와 계약을 체결, 국내 최고 수준인 6만6천여 편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

## 2. 귀사의 TV포털 서비스 “하나TV”의 장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?

2006년 7월말 서비스를 개시한 <하나TV>는 1월말 기준 약 30만 명의 고객이 신청을 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. 최근에는 신청가입자의 규모가 증가해 매일 약 3천명 이상의 가입자가 하나TV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하나TV의 성공적인 론칭은 하나TV가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성공적인 통방융합 서비스 모델로 자리잡았음을 증명하는 결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.

하나로텔레콤은 올해 <하나TV>를 통해 플래시게임, 노래방, 문자메시지, TV뱅킹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‘TV뱅킹’ 서비스를 위해 현재 시중은행과 협의 중으로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, ‘노래방’, ‘게임’, ‘화보집’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물론 ‘마이앨범’, ‘Net-CD’와 같은 커뮤니티 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. 뿐만 아니라 날씨, 교통, 운세 등 생활정보 콘텐츠를 확충하여 쉽고 편리한 TV매체를 중심으로 컨버전스 환경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.

한편 IPTV 등 새로운 통방융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망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하나로텔레콤은 2007년에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를 100M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총 1,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

## 3. IPTV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며, 귀사는 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?

하나로텔레콤은 IPTV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KT 등 통신업체들이 주도하는 씨큐브(C-Cube) 컨소시엄에 MBC, KBS, SBS, EBS 등 지상파 4사, SK 텔레콤, LG데이콤, 삼성전자 등 52개 업체와 함께 속해있으며, 2006년 1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350여 가구를 대상으로 26개 일반형 채널과 27개 양방향 TV 채널을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.



C-Cube 컨소시엄은 IPTV 시범서비스를 통해 주식, T-뱅킹, 쇼핑, 경매, 우편물 배달, 문자서비스, 메신저, 영상통화, 3D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했으며, 향후 성공적인 IPTV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IPTV시범서비스 기간 중 VOD 서비스와 지상파 채널이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되는 점에 대해서 고객의 긍정적 관심이 많았습니다. 실시간방송 서비스 여부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,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망고도화 작업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

## 4. 향후 IPTV 서비스 분야의 전망과 이에 따른 귀사의 전략이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IPTV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. IT업계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조차도 최근 다보스포럼을 통해 5년 안에 인터넷(發) TV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. 소비자가 주체가 되고 자신의 방송 시간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로의 TV시청 행태의 전환이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기술적인 면과 어울려서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.

IPTV는 최근 2~3년 이상 논란만 지속되고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,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, 국민후생 증대를 위하여 IPTV 조기 도입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.

하나로텔레콤은 현재 TV포털 서비스를 IPTV 서비스의 한 축으로 보고 <하나TV> 상용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및 콘텐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향후 IPTV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면, IPTV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 <하나TV>용 셋탑박스는 별도의 교체 없이 IPTV를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IPTV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셋탑박스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하나로텔레콤은 현재 <하나TV>의 성공을 통해 국내 TV포털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IPTV 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경쟁업체들에 비해 한발 앞선 상태입니다.